

바이러스와 싸우며 자라는 아이들



도안엠블병원 _ 황정주 원장

영유아기 전염성 질병

코로나19 이후 일상으로 돌아오면서 감염질환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.

우리 아이들의 생활에서 떼어내고 싶지만, 떼어낼 수 없는 것이 감염질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

감염질환의 전파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, 예방법에 대하여 나누어 보려 합니다.

영유아기에 흔한 감염병 전파경로는 크게 접촉, 비말, 공기매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.

접촉감염

- 감염이 된 사람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 접촉으로 이루어지며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수족구병, 로타 바이러스 장염이 있습니다.
- 직접 접촉이나 오염된 물을 통해서도 전파가 되어 수영장에서도 전파가 가능합니다.

비말감염

- 타액 입자가 다른 사람의 결막이나 비강, 구강 점막에 튀어 감염되는 경우이며 대부분의 감기 바이러스들이 이 안에 속합니다.
- 비말은 크기가 커서 약 1m 정도 이동이 가능하며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예방과 전파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

공기매개 감염

- 감염원이 작은 입자를 타고 공기 중을 떠돌다 이를 흡입하여 감염되는 경우이며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수두, 홍역이 해당됩니다.
- 공기를 통해 멀리까지 전파되어 같은 공간 내에 있는 것만으로도 전염의 위험이 있습니다.
- 해당 질환이 진단되는 경우 전염력이 높은 시기 동안은 반드시 격리해야 합니다.

하나의 감염질환이라도 하나의 방식이 아닌 두 가지 이상의 경로를 통해 전파될 수 있습니다.

그러므로 기본적인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또한 손 위생과 기침 에티켓을 숙지하고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것이

서로 간의 전염을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습관이 될 것입니다.